

# 조선 왕릉 관람로의 포장현황과 개선방향\*

백종철\* · 홍윤순\*\*

\*사)자연유산보존협회 사무국장 ·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Pavem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Viewing Road in Royal Tombs of Joseon Dynasty

Paek, Chong-Chul\* · Hong, Youn-Soon\*\*

\*Executive Secreta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Royal Tomb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lis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2009, is a cultural resource recognized for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round the world. The royal tomb of Joseon has been managed with an emphasis o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assets since it was designated as a historical site in the 1970s, but it has received many visitors as a valuabl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 and haven that connects the past and the present in today's bustling city. In order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pavements in the royal palace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this study conducted a complete survey of 53 royal palace viewing roads in 18 region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problems are found in both the early Masato pavement of the creation, which was introduced with an emphasis on the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cultural assets, and the hardening pavement(KAP), which began to be used in the 1990s for the convenience of maintenance. In other words, the Masato pavement used to create a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atmosphere of the Joseon royal tombs is showing a high percentage of use, but it lacks support for walking activities, such as the slippage of the pavement and water pooling during the rainy season or during the ice season. Also, hardening pavement introduced for convenience of maintenance, such as the movement of repair vehicles, is not functioning properly as it is damaged by physical deformation after construction. In addition, in awe zones such as parking lots, although the first image of the Joseon royal tombs is determined, the formation of the functional landscape centered on the carriageway does not harmonize with the traditional landscape, and, because of its lack of walking and environment-friendly features,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such as the experimental introduction of relevant pavement materials developed afterwards and continuous monitoring.

*Key words: Affordance, Pavement Environment, Royal Tomb of Joseon Dynasty, Viewing Road*

### 국문초록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은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공인받은 문화자산이다. 조선 왕릉은 1970년대 사적(史蹟)으로 지정된 이래 문화재 보존 측면에 중점을 두고 관리되어 왔으나, 오늘날 번잡한 도시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이자 안식처로서 많은 관람객을 맞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 왕릉 관람로의 포장현황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18개 지역 53기의 조선 왕릉 관람로를 전수 조사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재의 보전과 보호에 방점을 두고 도입된 조성 초기의 마사토 포장과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해 1990년대부터 사용되기

\* 본 논문은 2018년 문화재청의 학술연구용역인 '조선 왕릉 관람로 환경개선 정비방안 연구'의 결과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Hong, Youn-So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327 Chungang-ro Anseong-si, Kyonggi-do 17579, South Korea, E-mail : yshong@hknu.ac.kr

시작한 경화포장(카프 포장) 모두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즉 조선 왕릉의 자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용된 마사토 포장이 매우 높은 사용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우천 시나 봄철 해빙기에 포장면이 질척거리고 물이 고이는 등 보행활동에 대한 지원성이 결여되고 있다. 또한 보수차량의 이동 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경화포장 역시, 조성 후 물리적 변형에 의해 훼손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주차장과 같은 경외지역의 경우, 조선 왕릉의 첫 이미지가 결정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중심의 기능본위의 경관형성으로 전통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며, 더욱이 보행 및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까닭에, 이후 개발된 관련 포장재의 실험적 도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같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제어: 관람로, 조선 왕릉, 지원성, 포장 환경

## 1. 서론

현존하는 우리의 전통공간 가운데에서도 가장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조선 왕릉은 세계적으로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sup>1)</sup>'가 공인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2:49]. 이 조선 왕릉은 조선의 개국(1392) 이래 42개소가 조성되었는데, 그 대부분인 40개의 능(陵)·원(園)·묘(墓)<sup>2)</sup>가 우리나라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18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조선 왕릉은 번잡한 현대도시에서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이자 안식처로서의 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국내외적 인지도와 방문객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이렇듯 조선 왕릉은 관람객에게 휴식공간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동시에 능역공간을 원형대로 보존해야하는 상충된 문제를 안고 있다[4:1-2]. 그러나 조선 왕릉이 1970년대부터 사적으로 지정·보존되면서 문화유산 교육과 체험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관람로의 상황은 열악한 실정이다. 즉, 문화재청은 조선 왕릉의 문화재 지정 초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유구가 정비된 건물지 등은 잔디를 심어 표시하였고, 주변 바닥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마사토로 포장하였다[5:17]. 이후 1980년대로부터 1990년에는 궁궐과 왕릉 관람을 위한 마사토 포장의 관람로 일부가 유지관리 등의 측면을 고려한 경화포장(카프 포장)으로 재조성되었다. 또한 관람로의 피해 발생 시 담당 권역의 왕릉관리소 또는 세부현장별로 상황과 여건에 따라 관람로의 포장환경을 즉시적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까지 조선 왕릉 관람로에 대해 통일된 관리기준과 매뉴얼을 구비되지 못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sup>3)</sup>.

종합해볼 때, 현재 조선 왕릉 관람로는 타 문화유적지의 관람로에 비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고 단순한 소재로 조성되어 관람객의 편의성 증진과 무장애 공간의 확충과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

산으로 지정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조선 왕릉 내 관람로의 포장환경에 대한 자료의 구축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관람로 현황조사 자료의 미비는 조선 왕릉에 대한 기존의 현황조사 대부분이 정자각과 봉분 등 능역공간을 중심으로 공간 내 재실과 건축물, 석물, 시설물, 봉분 등이 위주가 되었던 반면,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지정된 왕릉 전체지역 포장환경에 대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 왕릉의 문화재 지정구역 내 관람로의 포장환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는 대외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문화유산의 정비 및 활용과 보전 방향의 모색에도 긍정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설정

본 연구를 위해 조사가 가능한 조선 왕릉 전체에 대한 전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궁능유적본부에서 관리하는 능·원·묘 118기 중 비공개 지역을 제외한 조선 왕릉 전체 19개소의 사적을 연구대상지로 추출한 바, 그 목록은 Table 1과 같다.

또한 조사연구범위를 조선 왕릉 내 특정 구역만이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된 조선 왕릉 내 관람로 전체를 포함하고 공간별 관람로의 포장 소재를 도면화함으로써 정량적 분석을 가능토록 하였다. 다만 경내 지역 내 능침이 입지하여 제함과 참배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성역공간 내부의 관람로는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준비 등을 통해 정비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조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적 연구범위에 현황조사와 더불어 주요 공간별 정성적 분석을 포함함으로써 제만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즉, 조선 왕릉 관람로 포장현황에 대한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달간

Table 1. The List of Survey Sites

No.	Historic Site No.	Name of Cultural Heritage(City)	Detailed Sites
1	No. 193	Donggureung (Guri)	Geonwonneung, Hyeonneung, Mokneung, Hwineung, Sungneung, Hyereung, Wonneung, Sureung, Gyeongneung
2	No. 197	Gwangneung (Namyangju)	Gwangneung
3	No. 209	Saneung (Namyangju)	Saneung
4	No. 207	Hongneung, Yureung (Namyangju)	Hongneung, Yureung, Yeongwon, Hoeinwon, Uichinwangmyo, Deokhyeongjumyo
5	No. 201	Taeneung, Gangneung (Seoul)	Taeneung, Gangneung
	No. 361		Young Hwi Won, Soong In Won
	No. 362		Yeonsan Tomb
6	No. 208	Jeongneung (Seoul)	Jeongneung
7	No. 204	Uirung (Seoul)	Uirung
8	No. 199	Sunnung, Jungnung. (Seoul)	Sunnung, Jungnung.
9	No. 194	Heonneung, Inneung (Seoul)	Heonneung, Inneung
10	No. 198	Seoreung (Goyang)	Gyeongneung, Changneung, Myeongneung, Ikneung, Hongneung, Sunchangwon, Suyeongwon, Daebinmyo
11	No. 200	Seo Sam-reung (Goyang)	Heereung, Yerung, Uiryongwon, Hyochangwon
12	No. 206	Yonglung, Gungnung (Hwasung)	Yonglung, Gungnung
13	No. 205	Samneung (Paju)	Gongneung, Sunnung, Yeongneung
14	No. 202	Jangneung (Kimpo)	Jangneung
15	No. 195	Yeongneung, Yeongneung (Yeosu)	Yeongneung and Yeongneung
16	No. 196	Jangneung (Yeongwol)	Jangneung
17	No. 524	Junyeongmyo, Yeongyeongmyo (Samcheok)	Junyeongmyo, Yeongyeongmyo
18	No. 203	Jangneung (Paju)	Jangneung
19	No. 210	Onneung (Yangju)	Onneung
Total(53)ea Neung(39)ea, Won(8)ea, Myo(6)ea			

입지 권역별로 구분하여 약 20회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이후 도면화와 정량적, 정성적 검토 분석의 후속 작업을 수행하였다.

## 2.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조선 왕릉 관람로 현황조사에 사용한 수치지도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한 1:1,000 수치지도로서 8개의 룡, 19개 능·원·묘(구리 동구릉, 남양주 사릉, 서울

선릉과 정릉, 파주 삼릉, 김포 장릉, 영월 장릉, 파주 장릉, 양주 온릉)의 조사에 활용되었다.

이외 11개 능 34개 능·원·묘(남양주 광릉, 남양주 흥릉과 유릉, 서울 태릉과 강릉, 서울 정릉, 서울 의릉, 서울 현릉과 인릉, 고양 서오릉, 고양 서삼릉, 화성 용릉과 건릉, 여주 영릉과 영릉, 삼척 준경묘, 영경묘)는 국립지리원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제작한 1:1,000, 1:5,000 지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11개 왕릉의 조사에 국립지리원 지도를 사용한 이유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제작한 지도의 성격이 왕릉 내 능침 공간과 석물, 재실만을 정밀실측 조사하여 제작한 지도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도가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지도보다 정확도와 해상도가 높게 표현되었으나, 조선 왕릉 문화재 지정구역 전체를 측량한 것이 적어 이를 모두 활용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현장조사 시 조선 왕릉 문화재 지정구역이 모두 조사된 8개 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제작한 지도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11개 능은 국립지리원 지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남양주 유릉을 사례로 두 지도간의 정밀도를 비교하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 A Comparison of Maps between Yureung in Namyangju -si



Figure 2. A Categorization of unit space of Joseon Royal Tombs (Donggureung in Guri-si)

조선 왕릉 중 경내 지역의 단위공간은 진입 공간, 제향 공간, 능침공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 그러나 조선 왕릉의 문화재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매표소와 주출입구, 담장을 경계로 경내, 경외 2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 공간을 사용현황과 목적, 기능에 따라 다시 구분하

였다.

즉, 왕릉 매표소 바깥 지역인 경외 지역은 차량의 주차와 보행자의 이동, 매표소 및 안내소 등의 관리소 등이 위치한 지역인 바, 진입로 및 주차 공간과 관리 공간의 2개의 공간단위로 구분하였다. 한편, 왕릉 매표소 안쪽 지역의 경내 지역은 왕릉

Table 2. A Status of the Entire Viewing Path by Royal Tombs

(Unit : m)

Name(City)	on /off site	Masato	Hardening	Barkseok	Granite Plate	Wood Deck	Block Type	Ascon	Concrete	Total	Total Length
Donggureung (Guri)	off	-	-	84	-	21	185	140	-	430	4,287
	on	3,442	374	41	-	-	-	-	-	3,857	
Gwangneung (Namyangju)	off	81	-	-	-	-	-	-	-	81	964
	on	807	35	-	-	-	41	-	-	883	
Saneung (Namyangju)	off	-	-	-	-	-	-	265	-	265	1,570
	on	1,305	-	-	-	-	-	-	-	1,305	
Hongneung, Yureung (Namyangju)	off	1,619	-	11	-	-	121	145	-	1,896	3,379
	on	1,027	-	85	-	8	13	-	-	1,133	
Hoeinwon (Namyangju)	off	-	-	-	-	-	-	-	-	0	3,379
	on	234	-	-	-	-	-	-	-	234	
Uichinwangmyo (Namyangju)	off	-	-	-	-	-	-	-	-	0	3,379
	on	116	-	-	-	-	-	-	-	116	
Taeneung, Gangneung (Seoul)	off	90	-	-	-	-	-	-	96	186	3,693
	on	2,276	-	-	-	38	-	-	-	2,314	
Soenginwon (Seoul)	off	-	-	-	-	-	-	28	-	28	3,693
	on	881	47	-	-	-	-	-	-	928	
Yeosan Myo (Seoul)	off	-	-	-	-	-	-	-	-	0	3,693
	on	210	-	-	-	27	-	-	-	237	
Jeongneung (Seoul)	off	-	-	-	-	-	-	-	28	28	1,141
	on	1,084	-	-	-	4	25	-	-	1,113	
Uirung (Seoul)	off	-	-	30	-	-	-	30	-	60	1,633
	on	1,291	218	-	-	16	48	-	-	1,573	
Seonjeongneung (Seoul)	off	46	-	-	-	-	-	-	-	46	3,614
	on	3,556	-	-	-	12	-	-	-	3,568	
Heoninneung (Seoul)	off	25	-	-	-	-	241	38	-	304	1,777
	on	1,345	-	-	-	128	-	-	-	1,473	
Seo Oreung (Goyang)	off	-	-	-	26	-	104	-	-	130	4,526
	on	4,248	-	-	-	41	107	-	-	4,396	
Seosamreung (Goyang)	off	32	-	-	-	-	-	-	-	32	735
	on	703	-	-	-	-	-	-	-	703	
Yonggeonreong (Hwaseong)	off	-	37	-	-	-	64	131	-	232	4,376
	on	3,860	172	6	-	18	88	-	-	4,144	
Samneung (Paju)	off	69	-	-	-	-	-	-	-	69	2,332
	on	2,239	-	-	-	-	-	24	-	2,263	
Jangneung (Kimp'o)	off	-	-	52	-	-	81	36	-	169	2,326
	on	2,072	-	-	-	13	72	-	-	2,157	
Yeongneung, Yeongneung (Yeouju)	off	-	122	-	-	-	179	-	-	301	3,209
	on	2,852	56	-	-	-	-	-	-	2,908	
Jangneung (Yeongwol)	off	-	-	-	-	-	-	160	-	160	1,310
	on	429	701	-	-	20	-	-	-	1,150	
Junyeongmyo (Samcheok)	off	-	-	-	-	-	-	-	-	0	558
	on	147	-	-	-	-	-	-	-	147	
Yeongyeongmyo (Samcheok)	off	-	-	-	-	-	-	-	-	0	558
	on	208	-	-	-	203	-	-	-	411	
Jangneung (Paju)	off	61	-	-	-	-	-	-	-	61	664
	on	603	-	-	-	-	-	-	-	603	
Onneung (Yangju)	off	-	-	-	-	-	-	-	-	0	404
	on	389	-	-	-	-	-	15	-	404	
Total		37,347	1,762	309	26	549	1,369	1,012	124	42,498	42,498

진입을 위한 진입 공간, 왕릉 간 연결을 위한 기타 공간, 재실이 위치한 제향 공간, 봉분이 위치한 능침 공간 4개의 공간단위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구리 동구릉을 사례로 한 공간 구분의 상황은 Figure 2와 같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선 왕릉 관람로의 공간별 포장현황

조선 왕릉의 관람로에 사용된 포장 소재와 양적 규모의 전체적 현황은 Table 2와 같다. 조선 왕릉 경내 및 경외지역 전체 관람로 조사 및 정리 결과, 사용 소재는 마사토, 경화 포장, 박석 포장, 화강암 판석, 목재 데크, 블록류(소형고압블록, 인조화강석),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조선 왕릉 관람로의 총 길이<sup>4)</sup>는 42,498m로, 경외 지역 4,478m, 경내 지역 38,020m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관람로가 마사토 포장으로 조성되었고(87.8%), 경화 포장(4.1%), 블록류(3.2%)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다시 공간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내 지역에는 마사토 포장(92.9%), 경화 포장(4.2%), 목재 데크(1.3%) 순으로 포장 재료가 나타나, 마사토 포장이 절대적인 비중을 점한다. 이러한 상황은 경내 환경에서의 전통성의 유지와 반영, 그리고 자연성 측면에서 무난한 소재로 평가되어온 까닭으로 판단된다. 반면, 경외 지역의 경우, 마사토 포장(45.1%), 블록류(21.7%), 아스콘 포장(21.7%)의 순으로 포장재료가 반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현대적 소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바, 이는 주차장, 입구광장, 진입입로 등에서 요구되는 지원성(affordance)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평가된다.

#### 2. 조선 왕릉 관람로 포장의 문제측면

##### 1) 경관성과 장소맥락의 측면

조선 왕릉 관람로에 대한 전수 현장조사 결과, 일부 왕릉의



Figure 3. A Masato(Left: Gwangneung in Namyangju-si) and Ascon Pavement Parking(Right: Donggugong in Guri-si)

경외 지역을 중심으로 마사토와 아스콘 포장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 왕릉 초입부에서 요청되는 장소성을 제공하지 못하며, 전통적 이미지와 상충되는 경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진입 및 전이공간의 경관을 훼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Figure 3). 즉, 동구릉 등에서 보이는 아스팔트의 대규모 주차장 역시 전통경관과 부조화될 뿐만 아니라 인간척도(human scale) 감각의 유지와 방향성의 제공 측면에서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한 부분적이기는 하나 Figure 4와 같은 사례 역시 발견된다.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 주변에 있어 색채 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기는 하나, 질감과 장소적 맥락에서는 매우 이질적인 소재가 자주 발견된다. 제주 현무암의 판석 또는 명도가 높은 노란색 시각장애인용 포장이 도입되는 상황은 기능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장소적 맥락과 부합되지 못하며 시각적 거부감을 촉발하게 한다.



Figure 4. The Jeju Hyunmooam(Left) and bright induction of the handicapped packing(Right)/Donggugong in Guri-si

반면, 이와 대조되는 측면으로 자연친화적 소재로 분류되는 마사토 포장의 비중이 경외 및 경내 지역 모두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내 지역에서의 마사토 포장은 92.9%를 차지할 만큼 왕릉 내 대부분 지역에 사용되고 있었다. 이 결과, 조선 왕릉 경내 지역 대부분에서 전통적인 경관이 유지되며 관람객들 역시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받고 있었다.

##### 2) 기능발휘와 유지관리 측면

조선 왕릉의 포장소재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사토 포장은 특히 장마 등의 집중강우와 해빙기에 훼손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일상적 이용에서도 문제가 발견된다. 즉, 왕릉 내 유지관리용 도로의 기능을 겸하는 관람로의 마사토 포장은 차량의 잦은 이동에 의해 포장면이 훼손되고 차량 진출입과 자연풍에 의해서도 비산 먼지가 발생되면서 관람환경이 불량해 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관리차량의 이용이 뜸한 구간에서도 특히 경사지에서 관람객에 의한 답압으로 관람로가 훼손되어 질척거림의 현상과 파손이 일어나고, 토양이 유실되거나 비산하는 등 관람환경을 불량하게 만드는 1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었다.

또한 1차 피해에 의해 훼손된 마사토 포장의 토양은 관람로 주변으로 유실되며 배수시설에 퇴적되거나 관람로 주변 식생 지역으로 유출되면서 관람로 주변 식생 환경을 훼손시키는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었다(Figure 5). 이러한 2차 피해는 강우 시 표면수의 이동과 토양 유실을 가속화 시키면서 관람로 주변 지역의 식생환경을 불량하게 하는 요인으로 관람로 주변 경관이 황폐해 지고 있는 실정이었다(Figure 6).



Figure 5. A Damage to the Viewing Road by Rainwater(Left) and Damage caused by Management Vehicles and Visitors(Right) Sunneung and Jeongneung in Seoul



Figure 6. A Drainage Facilities buried due to Soil Loss(Left: Dongreung) and Surrounding Plants buried in the Lost Soil(Right: Seollung and Jeongneung in Seoul)

### 3) 보행 지원성과 환경성 측면

구리 동구릉의 경내 주진입로 등에는 박석포장의 진입 연결로와 함께 오래된 인터록킹블럭(ILLP)이 일부 포장되어 있다(Figure 7). 이중 박석포장은 전통적 느낌과 부합되기는 하나 장애우와 유모차의 이용뿐만 아니라 하이힐의 여성 이용 시 불편이 초래되며, 불투수층을 기반으로 한 인터록킹블럭 또는 블록류의 포장환경은 공간의 질을 저하시키고, 전통성과 부조화 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Figure 7. A Bark-seok Pavement Trail(left) and Interlocking Block (right)/Dongguerong in Guri-si

아울러 기존 포장재 위에 다른 포장재를 한 겹 더하는 시도도 발견된다(Figure 8). 즉, 조선 왕릉 영역 내 많은 부분에서 즉지적으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인조비닐수지 또는 야자매트 포장부재의 덧댐의 상황이 그것이다. 비록 이들이 유지관리의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시설임을 이해하더라도 국내의 원료가 아닌 소재가 도입된 이러한 상황은 전통경관을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시각적 폐해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Figure 8. A Vinyl Resin(Left) and Palm-Matches Put-on Visitor Road(Right) Donggureung, Guri-si

## 3. 조선 왕릉 관람환경별 포장의 개선방향

### 1) 경외지역의 주차장과 진입공간

경외 지역의 첫 도착지점을 이루는 주차장과 이로부터 연속되는 진입공간 부분에 요구되는 포장환경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경외 지역은 차량의 주차와 보행자의 이동, 왕릉에의 진입 및 전이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친환경적이면서도 내구성이 우수하며, 특히 전통적인 경관과 상충되지 않는 관람로의 형성이 요구된다.

또한 조선 왕릉의 첫 이미지가 형성되는 지역인 까닭에 차량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보행자를 배려하는 포장재를 우선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화의 방안으로 아스팔트 등의 포설재보다는 블록소재 및 박석 등의 화강석 종류의 단위 포장재를 문양포장(pattern paving)하는 방법 등을 연구·적용하는 한편,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방향은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면서 전통을 보존, 활용하는 방안과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경외지역의 관리공간 주변

경외지역에서 매표소, 안내소, 관리소 등이 입지하는 관리공간 주변부의 포장은 경외 지역과 경내를 연결하는 공간인 동시에 보행 중심의 공간인 까닭에 다음과 같은 고려가 요구된다. 독자적 개성을 갖추되, 전체적으로 왕릉의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포장 환경이 추천된다. 자연소재인 목재데크의 활용, 차분한 질감의 화강석 및 박석포장, 전통문양을 흥미 있게 도입한 블록류 패턴포장 등이 적용 예가 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공간별로 산발적이어서 전반적으로 전통 환경의 지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념되어야 할 것이다.

3) 경내지역으로부터의 주진입로

경내의 주진입공간은 조선 왕릉으로의 진입 후 관람객이 도보로 이동하는 주간선도로이자 관리용 차량이 빈번한 환경이다. 아울러 초입부에 해당되는 이 구간은 제향 및 참배가 이루어지는 성역공간과 비교적 격리되어있으나, 앞서 살펴보았던 전통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마사토로 포장으로 내구성과 관리운영 측면에서 크게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 마사토포장의 단점을 개선, 극복하기 위해 자연성을 일정수준 이상 담보하면서도 경화포장의 효과를 겸비한 신규 개발 기능개선 포장재의 적용 및 새로운 포장재의 개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환경에 큰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자연성을 일정수준 이상 담보할 수 있는 포장재의 확대, 적용에 대한 모색이 요청된다 하겠다.

4) 기타 왕릉 간 연결로

왕릉 간 연결로인 국지도로 등의 경우, 왕릉 전체를 연계하며 관람객을 수용하면서도 많은 경우, 전술한 주진입로와 같이 왕릉 관리를 위한 차량의 이동 역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요구특성에 의해 자연친화적이며 내구성이 높은 포장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 관람로는 왕릉과의 경관적 민감도의 폭이 크고, 경사의 정도와 폭원, 기능별로 매우 다양한 까닭에 다음과 같은 원칙의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경관적 민감도가 큰 지역과 완경사지와 평탄지역, 그리고 차량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구간은 원칙적으로 마사토의 다짐 처리를 보다 더욱 견고하게 하여 준용한다. 반면, 왕릉과 근접되지 않아 경관적 민감도가 크지 않고, 경사가 상대적으로 심하며, 관리차량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구간은 앞서 경내의 진입공간에서 검토된 자연성을 담보하면서 기능이 강화된 경화포장의 적용을 검토한다.

5) 경내 제향 및 능침공간 주변

조선 왕릉의 중심 공간인 경내 지역 중 제향공간과 능침 공간 주변은 조선 왕릉의 진정성과 완전성 유지를 위해 전통성의 보전 복원에 기초하여 설정된 기존 관람로를 적극 확충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 조선 왕릉 관람로의 정량적, 정성적 조사 분석과정을 통해 공간단위별 기본조건에 따른 관람로 포장환경의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A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Consider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avement of Royal Tombs in Joseon Dynasty

Space & Sectio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Considerations	Space & Sectio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Considerations
Off-Site Area	Parking Area & Entryway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ehicle and Pedestrian Shared Places</li> <li>Ease of vehicle use and ease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li> <li>Natural transfer and safety consideratio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ifferentiating between the parking lot and the walkway for visitor movement</li> <li>Consider the Specialized Packaging for the Formation of Placeless and Landscape as the First Arrival Point of the Royal Tomb of Joseon Dynasty</li> <li>Ensuring durability and ease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li> </ul>	On-Site Area	Entrance Area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ce from the box office to the Royal Tomb</li> <li>Located in Jae-sil, Geumcheongyo Bridge, Convenience Facilities, Management Facilities, etc.</li> <li>Transitional space that connects to the sacred spac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mportance of ease of access and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li> <li>Necessity of visual buffer with royal tombs</li> <li>Need to be durable considering visitor support &amp; management vehicles</li> </ul>
						Inner Viewing Path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oyal Crosswalk and Visitor's Circular Road</li> </ul>
	Entrance Area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round the ticket, information &amp; management office</li> <li>Space for visitors to wait before entering the royal tom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dependent characteristics are required as the area within and outside the royal tomb</li> <li>Nature-friendly materials requir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awe and entry space</li> </ul>		Sacred Space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ce from Hongsalmun to Jeongjagak to Neungchim</li> <li>Space in the central part of the royal tom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eservation of the Royal Tomb for the Preservation of its authenticity and completeness</li> <li>Maintaining the traditional environment</li> </ul>

## IV. 결론

본 연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릉 문화재 지정구역 내 관람로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 왕릉은 매표소 또는 조선 왕릉 입구를 경계로 경외 지역과 경내 지역으로 구분된다. 경외 지역은 차량 주차를 위한 주차 공간, 매표소와 안내소, 관리 시설 등의 관리 공간이 위치하는 반면, 경내 지역은 왕릉의 중심 공간인 제향 공간과 능역 공간을 중심으로 왕릉을 진입하는 진입 공간, 왕릉 간 연결을 하는 기타공간으로 구분된다.

조선 왕릉에 조성된 대부분의 관람로는 마사토를 사용한 관람로로 조성되었다. 이는 전통공간의 자연친화적인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적이며 친환경적인 소재인 마사토를 사용하여 관람로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경외 지역은 차량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 마사토보다 소재가 단단하고 내구성이 높은 블록류(소형고압블록, 인조화강석 등)나 아스콘 포장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왕릉이라는 전통공간의 전이공간으로서 조화를 이루기에는 다소 부조화되는 소재로 판단된다.

현재 개방 중인 조선 왕릉 관람로의 마사토 포장 지역은 급격한 날씨의 변화와 답압, 자동차 통행 등에 의해 세굴되거나 파손되며 토양이 유실되고 있다. 관람로의 물리적 훼손은 관람로의 질적저림, 비산 먼지 발생 등의 2차 피해를 양산시키는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왕릉 관람 시 보행 불편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개선방안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노후화되어 시각적 질을 저해하는 인터록킹 블록 등은 가급적 조속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한국 수도권에 입지하는 맥락적 전통성 및 지역성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제주 현무암 판석, 야자매트 및 비닐수지계의 덧담 포장과 같은 국부적 환경에 대한 개선 역시 병행함으로써 유네스코 문화유산다운 정체성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유네스코 문화유산 조선 왕릉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람로 정비·관리 기준의 수립과 매뉴얼의 확보 및 시행, 그리고 모니터링의 강화 등의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릉의 관람로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 기존에 작성된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였으나 문화재 지정구역으로서의 특이

성과 능역 공간 중심의 실측 조사로 인해 현재 사용 중인 관람로의 위치를 현장 조사 후 보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할 때, 추후 조선 왕릉 전 지역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심한 확대의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 주 1)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기본요건이자 세계유산의 기본개념이다. 유네스코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 및 미래세대의 전 인류에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탁월성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exceptional)이라는 속성을, 보편성은 시간적으로 과거의 유산이지만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며 대상으로는 공통적(common)이라는 속성을 각각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유산이 세계유산 등재기준 10가지 중에서 하나 이상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유산이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기준은 단순히 주장한다고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1].
- 주 2) 고려, 조선시대 무덤의 구분은 역대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陵)이라고 하고, 왕세자나 세자빈, 왕의 사친(私親)의 무덤은 원(園)이라고 하며, 대군이나 왕자·군 또는 공주·옹주와 빈·귀인·후궁의 무덤을 묘(墓)라 한다[3:5].
- 주 3) 조선 왕릉 관람로에 대한 현지 실사 과정에서의 왕릉관리소 관리책임자 및 관리 직원의 면담을 통해 현재 통일된 관리기준과 매뉴얼이 전무한 까닭에 관람로 피해 발생 시 각 현장별로 즉지적인 처방이 반복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 4) 조선 왕릉별 관람로의 포장의 상황과 폭력이 매우 다양하여 이를 정량화하기 어려워 '길이'라는 미터(m)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주차장과 같은 면적인 지역은 가로, 세로의 길이 중 최장단을 관람로 길이로 계상하였다.

## REFERENCES

- [1] Lee, S. H.(2009). 'World Cultural Heritage & Joseon Royal Tombs'. Journal of Korean Associate of University Museums 61's Conference Proceeding.
- [2] Hong, Y. S. and Lee, J. Y.(2017). A Study on the Identity of Geumgok Hongneung as Origin of Imperial Tomb in Korean Empir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5(1): 48-56.
- [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01). A Reesearch of Forest Ecological Survey on Donggureung. Cultural Heritage Report.
- [4] Jo, A. Y.(2007). A Research on the Vegetation Management Criteria for the Royal Tombs of Joseon Dynasty.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Sangmyung University
- [5]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2007). Measures to improve the maintenance of historical sites. Cultural Heritage Academic symposiums Report.
- [6] <http://royaltombs.cha.go.kr>

원 고 접 수 일: 2019년 5월 20일  
 심 사 일: 2019년 6월 10일 (1차)  
 : 2019년 6월 18일 (2차)  
 개 재 확 정 일: 2019년 6월 18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